

이제 산지가 전용되고 개발되는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. 평지국가적인 사고에서 산지국가의 국민적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. 우리의 국토가 좁다고 원망하거나 산이 많아 쓸 땅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한다. 무질서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국토 현실로 보아 일정규모의 산지개발은 불

가피하며 이는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.

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로운 국토활용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열린 마음으로 더 멀리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. <동아일보 1995. 10. 14 전재>

## 송이버섯생산증대방안

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송이생산증대를 위해 하층식생정리, 낙엽·부식층제거, 물주기, 종이컵 씌우기 등 환경관리에 의한 송이증수 실험결과 최저 5배에서 최고 20배까지 증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-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송이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인자인 기온 및 지온, 강수량, 일조량, 강수일수와 연관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,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당년도 9월중 강수량이 송이발생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
- 따라서 살수에 의한 송이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북 문경 (1ha), 경

남 거창 (3ha) 을 대상으로 9월 4일 ~9월 30일까지 2일 간격으로 1㎡당 10ℓ의 물을 호스와 스프링쿨러를 이용하여 균환주변에 살수한 결과, 문경은 5배, 거창은 약 20배의 송이 증수효과가 나났으며, 품질면에서도 중량, 갯직경, 자루길이 등 10~30% 향상되었다.

- 송이산의 토양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9월중 2일 간격으로 1㎡당 물 10ℓ를 살수함으로써 송이증수에 의한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이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.
- 이밖에도 컵씌우기(송이발생 즉시 3~4일간 씌움)는 약 2배, 하층식생정리시는 1.4 배 각각 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송이버섯은 균환보호가 가장 중요하므로 송이 채취후 균이 손상치 않도록 잘 눌러준 후 주위의 지피물을 덮어주는 것이 보속생산 효과에도 크다고 밝혔다.
- 산림청은 송이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송이 발생지에 솔잎혹파리방제 수단 주사와 항공시비를 실시하고 있으며, 지난 8월에는 산림청, 임업연구

원, 임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송이버섯 주산지 순회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.

- 우리나라 송이버섯생산은 대체로 8월말부터 10월초순까지 생산되나 기온과 강수량등에 따라 6월이나 7월 중에도 송이가 생산되며, 생산량의 대부분은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.

## 송이생산 및 수출추세

